

# 정부, 2차 고위급 접촉서 '이산상봉 정례화' 제기 방침

### 박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에 만전" ... 개헌논의엔 반대

정부는 이날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열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봉의 시급성,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 바란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룰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해서 지속적인

변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불확실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 '하루 24시간 보조' 지원

### 중증장애인, 시에 감사 글

광주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을 받게 된 이후 달라진 가족의 삶을 페이스북에 올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장익선(27)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은 이후 어머니(45)는 편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고, 대학생인 동생(22)도 친구들과 즐거운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첫 사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씨는 "가족들이 그동안 자신을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만 갇혀 사는 바람에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까지 겪는 등 한숨지 밟조차 없는 깊은 터널 속에 있었다"면서 "24시간 활동 보조 지원을 받는 지금은, 부모님도 밤잠을 잘 수 있게 됐고 우울증도 나아져 경제활동까지 가능해졌다"고 했다.

장씨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감사의 글을 이어갔다.

장씨는 "지원을 받기 전에는 매일 밤이면 내 생명줄인 호흡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잠이 들어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등 죽음의 불안감에 시달렸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불안감 극복과 함께 근육장애인을 위한 협회에 취직까지 하게 됐다"며 광주시의 장애인 행정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씨의 사연을 접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랑합니다. 눈길을 놓지 않겠습니다"란 댓글로 화답했으며, 이후 많은 이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문희상 "5·24조치 해제해야"

### 문재인 "내년엔 정상회담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 방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과 관련,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정부 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땐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게 맞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상대방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대북제재)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고 상대가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지금은 남북관계 7년 암흑기에서 벗어나 절호의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 모두 어렵게 살았던 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머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살려내듯 이어가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통일 대박의 꿈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의 첨병은 정상회담"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정상회담을 해야 임기 중 남북관계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이 정상회담으로 진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잘 치러 남북관계 개선이란 첫 단추는 잘 꿰었고,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꿰어야 한다"며 "두 번째 단추를 잘 꿰도록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면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라고 먼저 제의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른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블랙이글' 곡예비행 6일 오후 수원공군기지에서 열린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 개막해 12일까지 열리는 경기항공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11번째 초음속 전투기인 FA-50 등 74대의 항공기와 346점의 공군 무기가 등장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연합뉴스

## 도시철도 2호선 수정안에 광주시의회 '발끈'

### 김민중 산전위원장 "노면구간 확대 소음·교통불편 ... 줄속 출구 전략"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6일 광주시의회 김민중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와 광주시 교통건설국과의 간담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TF팀은 2호선 미추진과 노면구간 확대, 원안 추진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노면 구간 확대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면 구간 확대안은 북구 양산지구에서 광산구 첨단지구를 지나 수원지구까지 지하로 건설하려던

구간을 지상 노면 방식으로 대체하고, 교차로는 간이 입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기존 노면 구간이 4.2km에서 11.9km로 늘어나게 되며 공사비가 1555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중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수정안은 윤장현 시장이 불필요한 분란만 일으켰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방침에 대한 줄속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시가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지상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번 TF팀에서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만 절약하려는 줄속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하방식이 아닌 노면방식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소음문제와 교통불편 및 안전 문제, 노면 철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간과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인 첨단 1, 2지구와 수원지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TF팀에게서는 광주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100일 전까지 매듭짓기로 했지만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나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의견 수렴 등의 방식을 고려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류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0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만 두경, 천우 하현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인 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 안내	경품 수량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6등까지는 참석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